

-(으)래요?

의향 묻기 / 의향 말하기

듣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거나,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. 친근하고 직접적인 표현이라서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래요	가다 → 갈래요
받침으로 끝남	-을래요	먹다 → 먹을래요
ㄹ로 끝남	-래요	만들다 → 만들래요
듣는 사람에게 묻기	물음표	같이 갈래요?
자신의 의향	평서문	저는 갈래요
윗사람에게	-(으)시겠어요?	가시겠어요?

■ 언제 쓰나요

의문문으로 쓰면 선택을 전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맡깁니다: 같이 갈래요? (올 생각이 있는지 묻기). 평서문으로 쓰면 자신의 의향을 나타냅니다: 저는 집에 갈래요 (나는 집에 가는 쪽을 택한다).

두 용법 모두 1인칭과 2인칭에만 씁니다. 제3자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쓸 수 없고, -고 싶어 하거나 추측 표현이 필요합니다.

말투에 주의해야 합니다. -(으)래요는 편한 존댓말이라 친구, 동료, 손아랫사람에게는 괜찮지만 상사나 선생님에게는 너무 직설적입니다. 윗사람에게는 높임의 -시-를 넣은 -(으)시겠어요? 나 -(으)실래요?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같이 영화 볼래요?
- 2 커피 마실래요?
- 3 저는 안 갈래요.
- 4 뭐 먹을래?
- 5 오늘은 좀 쉴래요.
- 6 이거 한번 볼래요?

■ 비교

-(으)까요?
-(으)까요?는 우리가무엇을 할지 묻고, -(으)래요?는 상대방이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. 앞의 것은 함께 결정한다는 전제이고, 뒤의 것은 결정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.

같이 갈까요? (함께 가자는 제안) / 같이 갈래요? (같이 갈 생각이 있는지)

-(으)게요
-(으)게요는 약속이고, -(으)래요는 단지 선호입니다. 갈래요라고 하면 갈게요와 달리 마음을 바꿀 여지가 남습니다.

저는 갈래요. (가는 쪽이 좋다) / 저는 갈게요. (그럼 내가 가겠다)

-고 싶다
-고 싶다는 바람을 묘사하고, -(으)래요는 곧 실행할 선택을 밝힙니다. 식당에서 먹을래요는 주문이고, 먹고 싶어요는 막연한 바람입니다.

불고기 먹고 싶어요. (불고기가 먹고 싶다) / 불고기 먹을래요. (불고기로 하겠다)

■ 주의

- ✗ 사장님, 커피 마실래요?
○ 사장님, 커피 드시겠어요?
-(으)래요는 윗사람에게 너무 가볍습니다. -(으)시겠어요?를 쓰고, 마시다도 높임말 드시다로 바꾸세요.
- ✗ 저녁을 만들래요.
○ 저녁을 만들래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게요, -(으)까요?와 마찬가지로 짧은 형태를 씁니다.
- ✗ 동생이 같이 갈래요.
○ 동생도 같이 가고 싶어 해요.
이 어미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의 의지만 나타냅니다. 제3자의 바람에는 싶어 하다가 필요합니다.